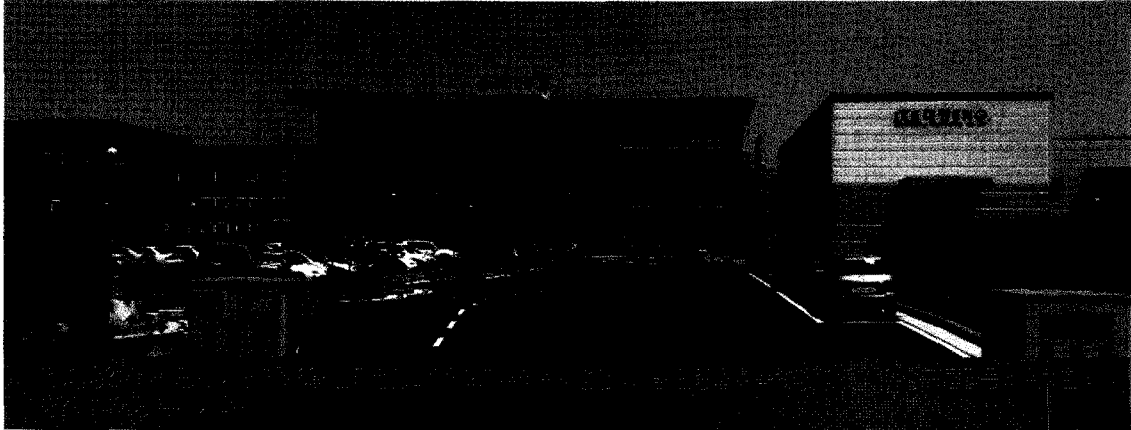


녹색경영 시스템 인증, 폭넓은 환경경영 실천 앞장



(주)대청엔지니어링(대표 성열구)이 지난 7월 6일 설비건설업계 최초로 한국품질보증원으로 부터 녹색경영시스템 인증(ISO 14001+α)을 취득했다. 대청엔지니어링은 그동안 녹색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실천역량을 강화하고, 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녹색경영 실천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시공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리스크에 대한 적극 대응 및 환경영향평가 도입, 폭넓은 환경경영 실천으로 녹색경영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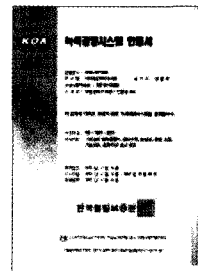
대청엔지니어링은 새로운 경영방식 도입에 선두주자이다.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96.9.10)을 비롯하여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0, '00.12.29),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18001, '07.12.3)도 설비건설업계에서 가장 먼저 인증을 받았다. 이번 녹색경영시스템 인증도 이러한 기반이 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대청엔지니어링에 '업계 최초'의 수식어가 붙는 것은 성열구 회장(사진)의 '줄면 먹힌다'는 경영철학 때문이다. ☉

성열구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84년 전통의 한밭대학교 총동문회를 고품격 동문회로 만들기 위해 지난 7월 14일 한밭대학교 총동문회장에 취임했다. 이 자리에서 성열구 회장은 장학금 및 동문회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쾌척했다. 성열구 회장이 이끄는 대청엔지니어링호의 다음 행보는 어디일지 주목되고 있다.



'줄면 먹힌다'는 경영철학으로 대청엔지니어링을 이끌고 있는 성열구 회장



녹색경영시스템이란?

저탄소 녹색성장의 산업계 확산을 위한 기업 차원의 실천전략으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주축으로 ISO 5000(에너지경영시스템 분야 국제표준), ISO 14064(온실가스 배출목록에 대한 국제표준), ISO 26000(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에서 새롭게 출범시킨 인증제도이다. 녹색경영시스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경영체제 인증 기업이어야 한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자양분”

– 가천대 장학기금 1억원 쾌척 –

최호선 인천광역시회 회장[(주)정호이앤씨 대표]은 지난 7월 20일 가천대 '제2기 가천 CEO 리더십 과정 수료식'에서 장학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최호선 회장은 이날 수료식에서 “가천대 제2기 원우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등록금이 없어 공부에 소홀하고 근심 가득한 후배들의 모습을 자주 접했고, 장학재단의 필요성을 느껴 장학기금을 기탁하게 됐다”면서 “이 장학기금을 계기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기부문화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호선 회장은 또 ‘교육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자양분’이라는 그의 신념에 따라 매년 추가적으로 장학기금을 낼 계획이다.

최호선 회장은 이밖에 원우회 회원들과 함께 대학 발전기금 2천만원도 기탁했다.

한편, 가천대는 최호선 회장이 기탁한 장학기금을 ‘가천대 최호선 장학기금’으로 정하고 향후 학내 장학재단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



▲ '제2기 가천CEO리더십과정' 수료식에서 장학금 1억 원을 쾌척한 최호선 인천광역시회 회장